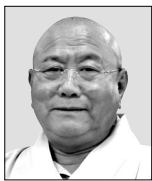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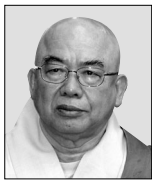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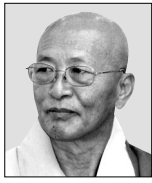
봉축수계대법회
동국대 정각원 법타 스님은 5월 12일 오후 4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을 전계사로 봉축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02)2260-3017



통도사 아울림한미당
양산 통도사 원산 스님은 5월 23일 오후 2시 초산유원지에서 어울림한미당을 개최한다. (055)382-7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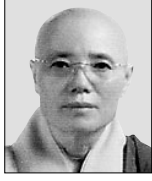
한강시원지체험관 개관
평창 월정사 정념 스님은 5월 9일 월정사에서 오전 9시 30분에 한강시원지체험관 개관식을 진행한다. (033)339-6800



용주사 하안거 결제기도
화성 용주사 성월 스님은 6월 1일 오전 10시 용주사 대웅보전에서 하안거결제기도를 입재한다. (031)234-0040



제5회 연꽃문화제 개최
의왕 청계사 성행 스님은 5월 10일 오전 10시 청계사에서 제5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전국비구니선원 제15차 정기총회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 대응 스님은 5월 7일 오전 11시 양산 내원사에서 선문회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당선법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정태혁 명예교수 별세

4월 16일 미국에서, 불교원전 연구 분야 개척



산스크리트어 등 불교원어를 통한 불교학 연구 분야를 개척한 향운(香雲) 정태혁 명예교수가 4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장지는 퐁아일랜드 파인론 공원이자.

1922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정 명예교수는 195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1963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1966년 오타니대 박사를 수료했다. 교사를 거쳐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했으며 퇴직 후 동방불교대 학장 등을 지냈다. 한국정토학회 초대 학회장을 비롯해 인도철학회 요가학회 아우르베대학교 회장등을 지냈으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노인문제연구소장 등도 역임했다.

정 명예교수는 국내 최초로 <표준 범어학>과 <기초 서장어> 등의 문법서를 출간해 불교원전 언어를 통한 연구 방법을 제시했으며 국내 인도철학분야를 개척했고, 불교학과 인도철학 비교연구에 주력했다. 노덕현 기자

원효학술상 우수상에 김종욱 교수

'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 연구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4월 27일 '제6회 원효학술상' 교수 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김종욱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수상작 '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교수(사진)는 불교와 하이데거의 사상을 비교한 연구로 한국불교 철학의 세계화를 시도해왔다. 현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동국대 HK연구단 단장을 맡아 불교와 서양철학 등 사상·문화간의 융합연구를 주도해왔다. 이번 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 또한 그 연장선상이다.

주최 측은 우수상 선정 이유로 "김종욱 교수의 저술은 불교와 하이데거의 사상을 비교하는 쉽지 않은 주제의 연구로서 각각의 사상적 깊이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 간의 차이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불교와 서양철학의 실험적 접촉
비전임 부문 박범석 연구원 영예

소통시키려고 한 연구 작업을 통해 한국불교 철학의 세계화 내지는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도로서 학술적 의의와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비전임교수 부문에서는 박범석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인권개념의 불교교육적 쟁점'으로 장려상을 받으며, 학생 부문에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배호 씨가 은상을 받는다.

한편, 원효학술상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시상하는 국내 불교철학 관련 권위 학술상으로, 2009년 제정됐다. 교수부문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이, 비전임교수부문 장려상은 300만원, 학생부문 은상은 2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5월 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매일 3시간 씩, 4개월 책 필사하며 공감

위승환 관장, 정찬주 작가에게 <천강에 비친달> 필사본 기증

위승환 태백산맥문화관 관장이 4월 13일 화순군 이양면 이불재에서 정찬주 작가(62)의 장편소설 <천강에 비친 달> 필사본을 저자에게 기증해 화제다.

위 관장은 <천강에 비친 달>을 2백자 원고지에 연필로 1104매를 필사해 이날 정 작가에게 기증했다. 위 관장은 매일 3시간씩 4개월 동안 필사하면서 혼민정을 창제의 비밀을 밝힌 <천강에 비친 달>을 더욱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위 관장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한글이 집현전 학사들의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창안과 왕의 지시를 받은 신미대사에 의해 절에서 비밀리에 창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독서회 모임 등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천강에 비친 달>은 1월 5일부터 31일까지 EBS FM 라디오에서 배우 강



정찬주 작가(사진 왼쪽)가 위승환 관장에게 <천강에 비친달> 필사본을 전달받고 있다.

신일 씨가 낭독해 청취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현재 2만부가 판매되는 등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출가 원력 되짚는 계기 삼겠습니다"

첫 1급 조계종 승가고시 수석 합격 선응·송탁 스님

승랍 25년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진행된 1급 승가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비구·비구니 스님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급 승가고시 수석자 스님들을 시상했다. 이날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은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응 스님과 수원 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에게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지안 스님은 "조선시대에도 명종대에 이르러 승가고시가 다시 시행되면서 불교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승가고시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두 스님이 최선을 다하셨다"고 당부했다.

비구 스님 가운데 1등을 차지한 선응 스님은 "1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중앙승가대 소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학인 스님들이 종단의 인제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해 종단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기불교를 공부한 송탁 스님은 비구니 스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송탁 스님은 "종단에서 처음 시행한 1급 승가고시에 1등을 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지만 마음 속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출가 정신을 다시 돌아보고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안 스님은 문화를 중심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도량인 아리담문화원을 수



중앙승가대 교학장 교학국장 선응 스님(사진 오른쪽)과 수원 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사진 왼쪽)이 대한불교조계종이 처음 치른 1급 승가고시에서 전체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원에 최근 개원했다. 스님은 "개인적으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등에 관심이 많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명상을 통한 포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4월10일 치러진 1급 승가고시는 수행 및 교화활동 이력, 활동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사갈마위원회의 면접갈마로만 치러졌다. 신성민 기자

"목조선풍의 새 장 열어 나가자"

조동종 제10대 총무원장 대은 스님 취임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잘 파악하여 조동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한국불교의 중심에 종단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종 제10대 총무원장 덕우 스님 취임식이 4월 26일 조동종 총무원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이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사업은 종도들에 대한 교육불사"라며 "체계적이고 차질없는 교육과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사회적 역할에 중생과 하나 되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현 가능한 불사부터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종단과 개별 사찰들이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방안들을 찾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덕우 스님은 또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사부대중들과 함께 의논하고 평등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종단의 발전은 바로 우리가 발원하고 시작하는 이 자리부터 시작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오늘 다시 한 번 초심을 가다듬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조동종 중정 지명 스님은 "목조선풍을 고양시키고 중생 삶의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어 한다"며 "애중심으로 일할 덕우 스님을 중심으로 종도들이 뭉치고,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 달라"고 법어를 내렸다.

승정원장 심월 스님의 축사에 이어 원위식 국회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승애 노원구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취임법회에 이어 조동종 창종조신인 동산존자 양계 대화상 한다래재가 진행됐으며 이어 사랑의 쌀 전달식도 열렸다. 조동종은 노원구청에 지역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주민을 위해 백미 200포를 전달했다. 취임식에는 조동종 중정 지명 스님을 비롯해 비릇 부총정 법공 스님, 승정원장 심월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전국사설사암聯,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명칭 변경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종단연합회(이하 한불련)로 법인명칭을 변경했다. 한불련은 3월 인천 보명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명칭 변경을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한불련 전신인 전사련은 2010년 4월 30일 사단법인을 설립 현재 300개 종단 및 신행단체가 등록된 법인이다.

한불련 관계자는 "북한불교 교류와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불교의 발전과 학술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불련 법인사무국은 전국지부 등록종단, 단체에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임명장, 지부설립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재발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원효보살 1329주기 추모대재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조이신 원효보살님의 1329주기 추모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중도여러분들의 무루 동참 바랍니다.

■ 봉행위원단 ■

종정 설제 정광

- 원로 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총무원장 보원, 규정원장 일문, 원로 위원 해초, 수진, 수경, 각운, 성호, 법진,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 의원 법진, 무상, 자광, 능관, 법관, 명운, 현수, 지광,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 춘명, 현수, 정운, 무공

- 종학원장 옥천, 법규원장 무상,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호산, 복지원장 범일, 의전실장 석해

-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서응,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제주교구원장 법민, 경기교구원장 해인,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전북교구원장 경오, 경북교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 총무부장 해진, 재무부장 천수, 교육부장 도선, 문화부장 대호, 사회부장 법정, 포교부장 성우, 복지부장 원해, 의전부장 무해, 규정부장 무중, 기획부장 법민, 사회국장 보문, 규정국장 남주, 복지국장 법선, 의전국장 향적, 사무국장 도현, 조사국장 최석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원효보살 1329주기 추모재

- 일시 : 불기 2559(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경주시 용담로 79-48, 경주실내체육관, 문의 : 총무원 054-743-0700

* 가사장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